

번역논문

문제해결사회학(Problem-Solving Sociology)* **

모니카 프라사드(Monica Prasad)*** 저

이지원(Ji-won Lee)**** 역

(번역자) 주제어: 문제해결, 사회학, 연구방법론

Key words (added by the translator): problem-solving, sociology,
research methodology

* 원문 서지정보: Prasad, Monica. 2018. "Problem-Solving Sociology." *Contemporary Sociology: A Journal of Reviews* 47(4):393-98. doi:10.1177/0094306118779810.

** 본 에세이를 논평해 준 앤드루 애벗, 안야 데젠샤인, 마이클 레빈, 메리 패틸로, 그리고 노스웨스턴대학에서의 문제해결사회학 워크숍에 참석한 학생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블룸버그 경제·정치사회학 석좌 교수(mprasad@jhu.edu).

**** 사회학 박사, 미국 뉴욕 주립 올버니대학에서 최종 학위 취득했으며 문제해결사회학 네트워크에서 수년간 온라인 워크숍 조직 담당으로 활동함(eg1.jiwon@gmail.com).

로널드 레이건은 경제학자란 “그게 현실에서 작동할 수 있다고 해도 이론상으로도 작동할까요?”라며 묻는 사람이라고 말한 바 있다. 사회학자도 경제학자와 그리 달라 보이지는 않는다. 오늘날 사회학에서는 어떤 학자가 집단학살(genocide) 문제의 해결책을 안다 하더라도 어딘가의 누군가는 “그렇군요, 하지만 그게 무엇의 사례에 해당하나요?”라며 물을 것이다. “이론화(theorize)”하려는 충동, 특수한 상황에서 일반적인 함의를 도출하고, 모래 한 알에서 우주를 보려는 충동은 우리 학문 분야에 깊이 뿌리내려 있으며 학술 출판의 필수 요건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구체적인 것을 일반화하려는 이러한 충동은 마찬가지로 동시대의 사회문제에 개입하려는 강력한 충동과 공존하고 있다. 사회학이 빈곤과 불평등 연구에 기반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많은 사회학자가 바로 이 전공을 선택한다. 마이클 부라보이(Michael Burawoy)의 “공공사회학(Public Sociology)”에서부터 테다 스카치폴(Theeda Skocpol)의 ‘학자들의 전략 연결망(Scholars Strategy Network)’까지, 가장 저명한 인물들의 시도를 포함하여, 우리는 사회학이 동시대의 사회문제를 연구하도록 유도하려는 프로젝트를 수십 년간 반복적으로 보아 왔다. 사회에 관한 과학적 탐구가 결국 동시대의 사회문제에 대해 언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자들을 비난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러한 충동은 지엽적이고 특수한 것을 초월하려는 충동과 긴장 관계에 있다.

두 가지 상충하는 충동을 절충할 수 있는 접근법을 근래 여러 학자가 제안했다. 이 접근법은 자연과학 내에서 기초과학과 응용과학 간의 구분이 과장되었다는 시각에서 출발한다. 실제로 기초과학의 많은 혁신은 응용의 문제와 씨름하는 과정에서 출발했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루이 파스퇴르다. 그는 사탕무 술이 시어지는 것을 막는다는 매우 실용적인 질문을 연구했고, 이는 질병 세균설에 강력한 증거를 제공했다(Stokes 2011). 더 최근에는 더 나은 요구르트를 만들려는 시도가 크리스퍼(CRISPR) 유전자 편집 기술의 혁명적인 발전으로 이어졌다(Grens 2015).

학자들은 비슷한 논점이 사회과학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제안해 왔다(Watts 2017; Pearson et al. 2016). 예를 들어, 인종차별이나 성차별과 같은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려면, 사회 계층화, 노동시장에서의 기회, 집단 형성의 심리학 등 인종차별과 성차별을 일으키는 구조뿐만 아니라, 규칙 및 법률의 양식 변화에 더해, 조직 혁신과 사회운동처럼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깊이 이해해야

한다.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시급한 사회문제 중 하나인 전과자의 사회 재통합 문제를 보면, 대량 수감(mass incarceration) 문제의 결과 중 하나는 최신 기술이나 훈련, 지원 네트워크, 장래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을 수백만 미국인의 사회 복귀를 관리해 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로 검토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공동체가 경계선을 어떻게 강제하는지, 지위의 상징적 전환 과정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리고 규범의 위반을 어떻게 바로잡는지와 같은 뒤르켐적인 질문(Braithwaite 1989)을 다루고 있음을 빠르게 발견하게 된다. 문제는 이론을 경험적으로 검증할 기반을 제공하고, 이론은 문제해결을 위한 자원이 된다. 그렇기에 현실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새로운 질문을 제기하고, 새로운 연구 경로를 제안하며, 새로운 방법을 요구하여 사회에 관한 근본적 이해의 돌파구를 제공하는 촉매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해결 지향의 접근은 앞서 언급된 제안 중 일부와는 구별된다. 이 접근은 사회과학자가 이미 아는 것을 사회과학계 밖의 대중에게 전달한다는 매우 유용한 목표에 초점을 맞추는 '학자들의 전략 연결망'과 같은 노력과 구분된다. 문제해결사회학은 오히려 사회과학자가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기 위한 접근이다.

이 접근은 마이클 부라보이의 “공공사회학”과도 구별된다. 공공사회학은 “대화의 당사자인 사람들로서의 공중(publics)과 대화하는 사회학”으로 정의된다(Burawoy 2005: 7). 이 정의에 따르면 인종차별을 어떤 식으로든 그저 연구하기만 한다면, 예컨대 특정 환경에서 나타나는 여러 인종차별 담론의 목록을 만들지만 하더라도, 이 연구는 충분히 많은 비사회학자가 읽는다는 조건만 충족하면 공공사회학으로 여겨질 수 있다. 반면 문제해결사회학은 인종차별을 해결하려는 시도에 관한 사회학이다. 문제해결사회학으로 여겨지기 위해서 연구 프로젝트는 인종차별 담론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담론이 태도나 실제 행동과 정말 관련이 있는지) 이해하려는 단계로 나아가야만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문제해결사회학은 더 어려운, 따라서 잠재적으로는 더 창의적인 과제이다. 인종차별을 연구하기는 쉽지만, 해결하기는 훨씬 더 어렵다.

그리고 바로 이 점으로 인해 문제해결사회학이 이론적 혁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단순히 한 현장에서의 담론 기술은 이론적으로는 특별히 흥미롭지 않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사회과학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큰 질문들과의 씨름을 요구하며, 많은 경우 사회이론의 발전을 필요로 한다. 문제해결사회

학은 보수적인 학문 전통이 우리에게 물려준 가장 중요한 것, 객관성을 지향하려고 시도한다는 이상에 충실하면서도 이를 뒤흔들 방법을 제공한다. 열띤 논쟁은 암의 해결에 도움을 주는 정도의 제한된 수준만큼만 빈곤의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문제에 관한 관심을 끌어오는 사람들의 역할이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다른 작업이며, 분석가가 이미 가지고 있는 소신을 자유롭게 펼치는 것은 이 작업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사회학 안에서는 언제나 문제를 해결하려는 충동이 있어 왔기에, 사회학 연구 중 이론을 성공적으로 사용해 사회문제에 접근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고, 사회문제 분석을 통해 사회학 이론을 발전시킨 사례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이하 논의할 사례 외 몇 가지 예시로 Andrews 2014; Paschel 2010; Kellogg 2011 참조). 그러나 성공적인 문제해결사회학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방법론적 교훈은 아직 일관된 방식으로 정리되지 않았다. 그러한 이유로 사회문제를 연구하려는 시도는 종종 세 종류의 혼란 함정에 빠지곤 한다. 여기서는 그 함정들을 논하고 벗어나는 방법을 보여주는 세 편의 연구를 선정해 살펴보겠다.

함정 1: 해결하기보다는 기술하고 개탄하기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로 시작한 수많은 학술적 연구가 결국 문제를 기술하거나, 문제에 관해 개탄하거나, 혹은 사람들이 그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는 방식에 관한 상세한 기술 제공에 그치고 있다.

이런 함정을 피하는 한 가지 길은 비교 방법의 활용이다. 문제를 해결한 현장과 그렇지 못한 현장을 식별하고, 사회학 이론의 도움을 받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그리고 그 해결책이 어떻게, 그리고 왜 도출되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이런 작업의 고전적인 예로 피터 에반스(Peter Evans)의 《배태된 자율성(Embedded Autonomy)》을 들 수 있다. 에반스는 매우 실천적인 질문으로 시작한다. 어떻게 매우 가난한 국가 중 어떤 국가는 부유해지는 데 성공할 수 있었던 반면, 다른 국가들은 그렇지 못했는가? 그는 빈곤을 기술하고 비판하거나, 사람들이 빈곤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논하는 데 시간을 쓰지 않는다. 대신 그는 어떤 국가가 어떻게 그리고 왜 산업화에 성공하는지 물어 빈곤을 실제로 해결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그는 정보산업을 창출하는 데 필요한 비교 우위를 갖추지 못했기에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전제에 따르면 실패해야 했을 한국, 인도, 브라질 등 세 국가가 어째서 해당 산업을 창출할 수 있었는지를 비교한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왜 한국은 성공했고 다른 국가들은 부분적으로만 성공하는 등 각기 다른 결과를 보였는지 묻는다.

이러한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한 에반스의 연구는 막스 베버에게 크게 기대고 있다. 하지만 그의 실천적 과제는 그로 하여금 베버를 넘어, 후발 산업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베버가 강조했던 능력주의적 관료제가 기업과 긴밀하게 소통해야 한다는 이론의 발전으로 나아가게끔 했다. 에반스는 후발 산업화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않았지만, 발전 문제를 고민하는 공동체가 거버넌스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세부 전공 분야에서 새로운 연구 의제를 설정하게끔 도왔다.

비교는 사회문제 연구자가 두 가지 위험을 피하도록 돕는 데에도 유용하다. 첫 번째 위험은 낙인찍기(stigmatization)이다. 어떤 사회환경의 문제나 역기능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면 연구의 대상 집단에 낙인을 필연적으로 찍게 되며, 연구되는 환경을 균형 있게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 그러나 순기능적이고 건강한 측면만을 부각하여 이를 바로잡으려는 시도는 낭만화(romanticization) 문제에 빠진다. 실제로 도시 에스노그래피 분야에서는 학자들이 주기적으로 서로를 '부정적인 면에만 집중하는 낙인찍기' 또는 '부정적인 면을 무시하는 낭만화'라고 비난하며 논쟁을 벌인다. 두 가지 문제는 체계적 비교의 전략, 문제가 있는 현장과 성공적인 현장을 대조하며 무엇이 그 둘의 차이를 만드는지 이해하는 전략을 통해 피할 수 있다. 무니라 샤라드(Mounira Charrad)는 이 전략을 어떤 무슬림 국가에서는 여성의 권리가 다른 무슬림 국가에서보다 왜 더 포괄적으로 보장되는지 설명할 때 사용한다. 그녀는 이 전략을 통해 이슬람교 전체가 여성의 권리 향상에 반대한다고 시사하지 않으면서도 이슬람 체제 아래 젠더 기반 차별의 원인을 탐구한다(Charrad 2001).

나는 이 방법이 실제로 일어난 일만 연구할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고 생각했었다. 그렇기에 인종차별이나 성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는 이 문제를 실제로 해결한 국가나 지역이 없다면 불행히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이 제약을 매우 창의적으로 돌파한 UCLA의 사회학자 알리자 루프트의 흥미로운 연구를 접하게 되었다(Luft 2015). 루프트는 르완다 집단학살을 연구하는데, 지역 사이나 심지어 개인 사이 비교가 아니라 오히려 개인 **내부에서** 비교의 초점을 찾는다. 집단학살을 설명하기 위해 그녀는 한 인물이 누군가를 살해했을 때와 그러지 않았을 때를 비교하며, 이를 통해 폭력으로 이어지는 상황 수준의 요인을 조명한다. 그녀의 연구

는 우리가 기꺼이 창의성을 발휘하고자 한다면 한계란 진정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 *교훈 1: 비교하자.*

함정 2: 악당보다는 희생자를 연구하기

사회문제를 연구하려는 학자들이 빠지는 또 다른 흔한 함정은 문제의 원인이 아닌 결과, 즉 악당이 아닌 희생자만을 연구하는 것이다. 사회문제를 연구하려는 학자가 희생자의 이야기 전달이 연구의 주요 목표라고 생각하는 것은 수궁이 간다. 그런 연구는 실제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희생자에 관한 연구는 우리로 하여금 문제의 정확한 본질을 이해하게 해주며, 특히 해당 집단에 관한 선행 연구가 부족할 경우 더욱 그렇다. 결국 이런 연구는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다. 현 시점에서 볼 때, 희생자를 기술하는 연구는 미국 사회학에서 전통적으로 덜 연구된 개발도상국 연구에 특히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희생자를 기술하는 연구만으로는 문제를 발생시키는 과정의 전체 그림을 파악할 수 없다.

매튜 데즈먼드(Matthew Desmond)의 《쫓겨난 사람들(Evicted)》에서는 비록 온전히 구현되지는 못했지만, 한층 더 나은 접근법이 제시된다. 데즈먼드는 강제 퇴거(eviction)를 연구하기로 한 이유를 설명하며 기존의 빈곤 연구가 다음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고 평한다. “저소득층 가정과 그들 공동체의 삶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바로 그런 영향력을 행사했기에 부자가 된 그들은 어디에 있었는가?”(2016: 317). 달리 말해, 빈곤을 연구할 때 우리는 왜 그 문제를 실제로 초래한 사람이 아닌 희생자만 연구하곤 하는가? 데즈먼드는 특정 집단을 연구하는 대신 특정 과정, 즉 부유층과 빈곤층 사이의 관계를 만드는 과정으로서의 강제 퇴거를 연구하기로 선택했다. 그는 많은 퇴거자를 연구하지만, 동시에 건물주의 평소 업무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퇴거를 집행하는 사람들 또한 연구한다. 이를 통해 데즈먼드는 희생자만 연구해서는 그들을 희생자로 만드는 과정의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보여준다.

“악당”을 연구하지는 제안을 통해 행위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이론을 옹호하려는 의도는 없다. 예컨대 퇴거 문제에 관한 총체적 설명은 집주인의 책임만을 묻지 않고, 그들 역시 특정한 보상과 처벌 시스템에 어떻게 갇히게 되었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그 연구는 아마도 결국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를 밝히기 시작할 것이다. 일반적인 요지는 개입 지점을 찾기 위해 사회문제의 결과뿐만 아니라 원인을 연구하자는 것이다(유념해야 할 점이 있다. 어떤 개입은 (종종 머나먼 과거에 있는) 원인을 제거하지 않거나 못 하기에 그저 그것을 우회할 따름이다).

더욱이 희생자만 연구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 해결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예컨대 우리가 빈곤층의 행동만을 연구하여 그들의 행동에 대한 전문가가 된다면, 상황을 개선할 정책의 개발 수요가 있을 때 우리는 빈곤층의 행동에 대해서만 진지하게 논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희생자만 연구하는 것은 희생자를 비난하려고만 하는 이들에게 빌미를 제공하고(예: Schneider 2017 참조), 상황을 어떻게 바꿀지에 관한 우리의 지식은 빈약한 상태로 남게 된다.

아마도 이러한 동학으로 인해 빈곤 연구 저술의 “정책 제안” 부분은 때로는 순진하고 마무리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덧붙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빈곤층의 행동에 대한 저자의 전문성은 저자가 하고 싶지 않은 제안으로만 이끌고, 정작 그 제안은 저자 자신의 실제 전문성과 아무 관련이 없다. 왜냐하면 그 전문성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통해 길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나는 데즈먼드의 방법을 더욱 밀고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데즈먼드는 희생자와 희생자를 만들어 낸 사람이 직접 대면하는 과정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그렇기에 그는 빈곤을 초래하되, 그들이 만들어 낸 희생자와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과정을 간과한다. 가령 압류 정책을 결정하는 은행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어떤 문제는 다루고 어떤 문제는 외면할지 선택하는 정책결정자 사이의 일들, 채용 공고를 낼지 말지 그리고 낸다면 누구를 채용할지 결정할 권한을 가진 기업, 다른 현안보다는 특정 현안에 집중하도록 유도되는 대학 캠퍼스의 활동가, 투표 방법이 궁극한 중산층 가정 등을 간과한다. 부유층과 빈곤층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에 초점을 맞추며 논의를 시작하면 은연중에 빈곤의 원인에 대한 부적절한 가정을 전제하게 된다. 그리고 실제로, 데즈먼드는 자신이 공언한 방법에도 불구하고, 책의 대부분에서 빈곤층의 신체와 행동에 주목하는 데 머물러 있다. 빈곤의 해결 방법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도시 빈곤층에게서 멀리 떨어진 장소에 관한 연구한 전통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Watkins-Hayes 2009; Rodriguez-Muniz 2015).

➤ *교훈 2: 문제의 결과만이 아니라 원인 희생자보다는 악당을 연구하자.*

함정 3: 새로운 해결책을 생산하기보다는 다른 해결책을 비판하기

사회문제 연구가 빠지는 세 번째 함정은 대안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들이 제안한 해결책을 비판하는 것이다. 정책결정자나 경제학자가 제안하는 해결책은 환원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가정에 기초했다는 이유로 자주 비판을 받지만, 비환원주의적이고 비개인주의적인 대안이 제시되는 경우는 드물다.

구소련 지역 국가에서의 부패를 연구한 마리나 잘로즈나야(Marina Zaloznaya)의 《관료 부패의 정치학(The Politics of Bureaucratic Corruption)》은 기존 해결책에 대한 비판을 넘어 새로운 해결책을 제안하는 방법에 대한 교훈을 제공한다. (미리 솔직하게 밝혀두자면 잘로즈나야는 나와 공동 연구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내가 그녀의 연구에 감탄했기 때문에 공동 연구를 하게 되었지 그 반대가 아니다.)

잘로즈나야가 다루는 문제는 부패이다. 그녀는 부패한 환경과 그렇지 않은 환경을 비교하며 연구를 시작했고, 부패가 한 국가 안에서도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재빨리 발견했다. 이 사실이 부패 문제의 이론적 속성과 이에 맞서 싸울 잠재적 방법을 함께 찾아나가게 해준 첫 번째 단서였다. 그녀의 서술에 따르면 사회학자들은 경제학자나 정치학자와 비교하면 부패에 훨씬 적은 관심을 기울여 왔고, 따라서 부패에 대한 개입을 뒷받침하는 기존의 부패 관련 이론은 사회학자들에게 익숙한 동학에 빠지게 한다. “[부패에 대한 개입]은 한편으로는, 소위 국가 수준의 부패 문화를 근절하기 위한 전국적인 홍보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법적이고 행정적인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체포된 범법자를 엄중히 다루는 것을 수반한다. (...) 《관료 부패의 정치학》에서 제시된 증거는 이러한 종류의 여러 시도의 근본 전제가 (전자는 부패를 규범으로 가정하는 반면, 후자는 부패를 규범으로부터의 일탈로 취급하기에) 상호모순적이며 그만큼 경험적으로도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준다”(162쪽). 다시 말해 부패에 대한 기존의 접근 방식은 과잉사회화(oversocialized) 또는 과소사회화(undersocialized)되어 있으며, 이는 바로 마크 그라노베터가 경제 현상에 관한 연구 전반에서 식별했던 문제(Granovetter 1985)와 정확히 같다.

잘로즈나야는 이어 다음과 같이 묻는다. 만약 사람들이 국가 수준의 문화적 각본을 따르거나 개인 수준의 비용-편익을 계산하지 않는다면, 부패에 가담할지 말지를

실제로는 어떻게 결정하는가? 여러 도시에서 진행한 강도 높은 에스노그라피와 인터뷰를 통해, 그녀는 사람들이 조직 내의 소문과 비공식적인 관계를 활용해 뇌물을 줄지 말지, 그리고 준다면 어떻게 주어야 할지를 배운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녀는 응답자들에게 “만약 뇌물을 주지 않거나, 학장이 합격시키라고 압박하는 학생을 합격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와 같은 질문을 조금씩 바꾸어 거듭 묻는다. 그리고 응답자들은 굳이 알고 싶지 않으며, 확인해 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답한다. 이런 반응은 그녀를 조직의 일상이 검증되지 않은 가정에 기반해 유지되다는 칼 와이크의 발견(Weick 1995)을 참조하도록 이끈다. 잘로즈나야는 재빨리 부패의 해결이라는 매우 실천적인 질문의 영역에서 매우 이론적인 질문, 무엇이 조직을 작동하게 하느냐는 질문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그녀는 조직이론가들이 제시한 조직의 변화 방식에 관한 이론을 검토한 뒤, 처음 던졌던 실천적인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 답하고자 한다.

잘로즈나야가 단순히 기존 해결책의 비판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자. 그녀는 사회학 이론에 기반한 대안을 실제로 제시하며, 전통적인 반부패 개혁의 초점이었던 국가나 개인 수준이 아니라 조직 수준이 정책 개입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례는 문제해결사회학의 한 가지 전략이 사회학 이론의 관점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기존 시도를 면밀히 검토하고, 그 이론을 활용하여 사회학에 더 잘 기반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실천과 이론을 오가는 이러한 움직임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특정한 정책 현안을 검토하는 이론적 문헌의 통찰을 송두리째 끌어 쓸 수 있으며, 이는 다른 여러 경험적 사례에서 발견된 통찰을 특정 사례에 적용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이론적 질문을 찾아내는 능력은 첫째 실천 지향의 연구를 이론적 용어로 구성하고, 둘째 정책적 시도를 인도할 수 있는 이론적 문헌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번역의 열쇠로 작동한다.

이 방법을 따라 여러 뛰어난 신진 사회학자의 모임이 국가 역량(state capacity)에 관한 새로운 논의 의제를 발전시키고 있다. 잘로즈나야 외에도 에린 맥도넬(McDonnell 2017)과 마이클 롤(Roll 2014)은 내가 보기에 오늘날 사회학에서 가장 흥미로운 연구 성과를 내놓고 있는데 이들의 연구는 서로 결합하며 국가 역량 문제에 대한 지역과 조직 수준의 접근법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 접근법은 지구적인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으려는 그들의 노력에 깊이 뿌리박고 있으며, 사회

학 이론을 활용하는 동시에 발전시킨다.

➤ *교훈 3: 실천적 질문 속에서 이론적 질문을 찾아내자.*

물론 실천적 질문을 이론적 질문으로 번역하는 일이 항상 쉽지만 하지는 않다. 한 가지 전략은 이러한 번역 작업을 핵심 중점으로 삼는 문제해결사회학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며, 그러한 노력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글 초반에 불평하기는 했지만, 나는 “그게 무엇의 사례에 해당하나요?”라는 질문이 특수한 문제가 어떤 더 큰 현안을 드러내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하는 탁월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나아가 사회학자들이 문제해결에 나선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지, 그렇다면 언제 될지는 확신할 수 없는 일이다. 누군가가 잘로즈나야, 맥도넬, 롤, 그리고 그들과 같은 다른 학자에게 모종의 주의를 기울였는지는 20년쯤 지나야만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해결사회학은 설령 연구가 문제해결의 시도에서 벗어난다 하더라도 새로운 발견을 끌어낼 수 있다. 가정폭력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마고 마한(Margo Mahan)의 사례를 생각해 보자. 이를 위해 그녀는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남성들을 인터뷰하며 연구를 시작했다. 그리고 그 현안에 더 깊이 파고들며, 프로젝트는 예상치 못하게 역사 연구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마한은 가정폭력 관련 법률의 기원이 백인 우월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에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다룬 뛰어난 박사 학위 논문을 썼다(Mahan 2017). 이 연구는 놀라운 역사 연구 성과이다. 이 연구는 가정폭력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사건을 다루는 데에는 회복적 형태의 사법 실천이 더 적절할 수 있다는 중요한 논점을 창출하였다. 그러나 가정폭력법의 기원에 관한 이러한 중요한 통찰은, 마한이 실천적이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표에서 시작하지 않았었다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지한 시도는 반드시 새로운 사회학적 통찰로 이어지는데, 사회문제란 세상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문제해결사회학은 세상을 위해 무엇을 해내든 혹은 그렇지 못하든, 이 글을 읽는 우리가 모두 틀림없이 원하고 있을 무언가, 즉 더 야심 찬 사회학에 대한 지평을 열어준다.

참고문헌

- Andrews, Abigail. 2014. "Downward Accountability in Unequal Alliances: Explaining NGO Responses to Zapatista Demands." *World Development* 54: 99-113.
- Braithwaite, John. 1989. *Crime, Shame, and Reintegra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urawoy, Michael. 2005. "For Public Sociolog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0(1): 4-28.
- Charrad, Mounira. 2001. *States and Women's Right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Desmond, Matthew. 2016. *Evicted: Poverty and Profit in the American City*. New York: Crown Publishers. (국역본: 매슈 테즈먼드, 2016, 《쫓겨난 사람들 : 도시의 빈곤에 관한 생생한 기록》. 성원 옮김. 동녘.)
- Evans, Peter. 1995. *Embedded Autonomy: States and Industrial Transformation*.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Granovetter, Mark. 1985. "Economic Action and Social Structure: The Problem of Embeddednes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1(3): 481-510.
- Grens, K. 2015. "There's CRISPR in Your Yogurt: We've All Been Eating Food Enhanced by the Genome-Editing Tool for Years." *Scientist* 29(1).
- Kellogg, Katherine C. 2011. *Challenging Operations: Medical Reform and Resistance in Surger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uft, Aliza. 2015. "Toward a Dynamic Theory of Action at the Micro Level of Genocide: Killing, Desistance, and Saving in 1994 Rwanda." *Sociological Theory* 33(2): 148-72.
- Mahan, Margo. 2017. *The Racial Origins of U.S. Domestic Violence Law*. PhD Dissertation, Department of Sociology, University of California-Berkeley.
- McDonnell, Erin Metz. 2017. "Patchwork Leviathan: How Pockets of Bureaucratic Governance Flourish within Institutionally Diverse Developing Stat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82(3): 476-510.
- Paschel, Tianna S. 2010. "The Right to Difference: Explaining Colombia's Shift from Color Blindness to the Law of Black Communi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16(3): 729-69.

- Pearson, Elizabeth, Peter Evans, Vivek Chibber, Frederick Wherry, Miche`le Lamont, Elisabeth Clemens, Isaac Martin, Lane Kenworthy, and Ho-fung Hung. 2016. "How Comparative Historical Sociology Can Save the World." In *Trajectories: Newsletter of the ASA Comparative and Historical Sociology Section* 27(3): 1-32.
- Rodríguez-Muñiz, Michael. 2015. "Intellectual Inheritances: Cultural Diagnostics and the State of Poverty Knowledge." *American Journal of Cultural Sociology* 3 (1): 89-122.
- Roll, Michael, Ed. 2014. *The Politics of Public Sector Performance: Pockets of Effectiveness in Developing Countries*. New York: Routledge.
- Schneider, Christian. 2017. "Schneider: Desmond's 'Evicted' Is a Flawed Masterpiece." *Milwaukee Journal Sentinel* April 11.
- Stokes, Donald E. 2011. *Pasteur's Quadrant: Basic Science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 Watkins-Hayes, Celeste. 2009. *The New Welfare Bureaucrats: Entanglements of Race, Class, and Policy Reform*.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Watts, Duncan J. 2017. "Should Social Science Be More Solution-Oriented?" *Nature Human Behaviour* 1:1-4.
- Weick, Karl E. 1995. *Sensemaking in Organizations* vol. 3.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Zaloznaya, Marina. 2017. *The Politics of Bureaucratic Corruption in Post-Transitional Eastern Europ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접수 2025.12.03; 게재확정 2026.2.20>